

종합·해설

박원순-나경원 선대위 출범...서울시장 선거 총력전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6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후보를 맞이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한 뒤 홍준표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야권 뭉친 '朴캠프'

손학규·이정희·유시민 대표 선대위원장 거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르면 7일 공식 출범한다.

선대위원장에는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야권 단일후보 경선에서 박 후보와 맞붙은 민주당 박영선, 민노당 최규영 후보 등은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무 협상을 맡은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과 민노당 김종민 서울시장 위원장, 국민참여당 홍용표 서울시장 위원장 등도 선대위의 주요 직책을 맡을 전망이다. 이밖에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의 김기식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와 현재 박 후보 캠프를 총괄하고 있는 하승창 기획단장은 실무라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선대위 대변인의 경우 현재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은 송호창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손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조만간 이정희 유시민 대표 등과도 회담해 이 같은 내용의 선대위 구성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의 민주당 입당 여부에 대해 "우리가 박 후보를 해방시켜 주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박 후보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를 비롯한 민주당은 전적으로 몸을 바쳐서 할 테니 민주당에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 대해서는 편하게 생각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박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민주당에 입당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주변의 압력도 낮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야권 단일후보는 대통합의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든 안 가지든 박 후보는 민주당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주변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고 아직도 충분히 결심을 못 했다"면서 "정말 해방된 느낌"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통합과 변화, 혁신은 시대정신이고 정당의 큰 화두"라며 "실제로 민주당이 중심이 돼 변화와 통합을 이뤄 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손 대표의 대표적 사퇴 의사 표명 및 번복 과정을 언급, "돌아와 주셔서 고맙다"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는 일비하는 날, 오늘은 일희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두 사람 간의 발언에 비해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출마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뒀고, 7일 후보 등록에서도 무소속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야권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겠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은 민주당의 희생과 헌신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의 큰 그릇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계파 초월한 '羅캠프'

박근혜 지원 속 친이·친박·보수진영 참여

한나라당은 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총력전 태세를 갖췄다.

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겸한 선대위 출범식에는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경진 사무총장,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의원 등 선대위 고문, 원희룡·박진·권영세·이종구 공동 선대위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유승민 최고위원과 함께 홍사덕·김태환·안홍준·황진하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박근혜 전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직전 기자회견과 만나 "지금 상황은 정치 전체가 위기이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나 후보에게)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밝혀 힘을 보탤다. 박 전 대표는 나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이 공식화되면서 야권의 박원순 후보에 대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원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나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 패배주의를 걷어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노의 세력은 정치를 변화시킬 수 없고, 권력을 잡기 위해 자기 정당의 가치마저 부정하는 이들과 손잡은 무책임한 이들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며 "정치권력을 감시하던 시민사회 세력이 스스로 정치권력으로 군

림해서야 되겠느냐"고 박원순 후보를 겨냥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가 '범여권 대 범야권' 대결구도로 치러지는 점을 감안, 친이(친이명박)·친박 계파를 초월하고 보수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하는 '초계파 통합 선대위'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나 후보는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홍석동 국립현충원을 방문, 방명록에 '興國一念(흥국일념)'이라고 적으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어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의 총력 지원을 요청한 뒤 중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 후보 등록을 마쳤다.

대대적 출정식을 가진 나 후보는 오후 8시 대표와 함께 우면동 한국교총을 찾아 교총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어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과의 간담회, 제60회 향군의 날 기념식, 천안함 46용사 2주기 추모음악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박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광용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박 전 대표가 유세 반장도 아니고 그를 서울시장 선거에 일회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같은 당이니 심정적 지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지원 유세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안 되며, 박 전 대표는 차기 대권을 승리로 이끌 유일한 지도자로 남겨줘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홍준표 대표의 책임 하에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박주선 "정부 복역류 국민 4명 행방 몰라"

20개월 전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국민 4명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 신원과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박주선(광주동구) 의원은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2월 26일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국민 4명의 현재 상황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니 통일부가 사실상 그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답변이 돌아왔다"라며 "정부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것은 국민 안전에 소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이희호 여사 방북 승인하라"

김동철 (민주당 광주 광산 갑)의원은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희호 여사가 최근 '남북화해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가까이 북한에 가고 싶다'고 방북 의사를 밝혔다"라며 "이 여사의 방북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모자 1만 개를 손수 짰지만, 정부가 방북을 불허함으로써 방북이 무산됐다"라며 "이 여사의 방북 계획은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니 만큼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숙, 광주·전남 암 수검률 '우수'

광주·전남지역 암 수검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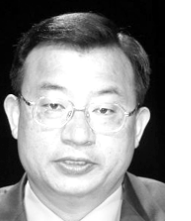
6일 민주노동당 곽정숙(비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암 수검률은 48.05%, 전남도는 51.37%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각각 6위와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암 수검률 45.3%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전남의 경우 구례군의 암 수검률이 58.94%로 가장 높고 광양시가 46.98%로 가장 낮았다.



이정현 "존스쿨 처분자 전문직·공무원 상당수"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 '존스쿨'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검사와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이른바 전문직과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각각 955명과 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이정현(비례)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스쿨' 처분을 받은 인원은 지난 2009년 3만7679명, 2010년 1만3471명, 올 상반기 현재 2522명 등 총 5만3672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일반 사무직 종사자(42.8%)가 가장 많았고, 무직자(25.9%)가 뒤를 이었다.



유정복, 전남 의료원 3곳 누적적자 388억

전남지역 3곳의 지방의료원이 매년 적자에 허덕이면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이 지방의료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순천·강진·목포 의료원 등 전남지역 3곳 의료원의 누적적자는 총 388억1600만원에 이른다. 강진의료원이 185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포의료원(119억5800만원), 순천의료원(89억4500만원) 순이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지연녹지(물류창고, 공장지형) 광산구비어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지,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94400평, 건축을 있을, 매매가 13억
- ▶중주거지역 (병원, 시육,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소간도로변, 지하철거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풍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 13억5천만원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 월810만원 매매가 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 15억8천만원

공장 건물 매도

- ▶광산구 우산동, 광주공항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 8억

<근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판공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임 ■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수원지구 상가 분양 전문 임대 전문

학원·병원 한의원·고급식당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즉시입주가 가능 시비없음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건설팀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 2억 6천만 최저가 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앞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9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접(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창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창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도·소매
할전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스팀찜
전복어찌
전복장터

일곡지구 연초제초창, 월성, 코카콜라, 해태제과,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금광아파트, 500m, 전복장터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